



순창군이 '느리게 느리게 섬진강 팜파티'라는 주제로 섬진강의 자연생태와 느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순창군 섬진강 팜파티 '눈길'

자연생태 · 느림의 문화 체험 색다른 농촌 체험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느리게 느리게 섬진강 팜파티'라는 주제로 섬진강의 자연생태와 느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18일 도시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 일원에서 섬진강 팜파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팜파티는 슬로공동체에서 주최했으며 순창군이 후원했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촌체험상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마케팅 모델이다.

순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팜파티 형태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회 600여명의 도시민이 순창을 방문해 팜파티를

즐겼다.

이날 열린 팜파티는 최근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적성 슬로공동체의 특징을 잘 살린 행사였다.

행사장에 모인 도시민들은 순창 섬진강변에서 자연과 사람, 먹을거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섬진강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간직된 장군목 주변 섬진강 슬로걷기와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생태체험에서는 마을관광해설사가 나서 순창섬진강의 유래, 섬진강변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 용굴산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관광객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또 점심시간에는 슬로공동체에서 준비한 연잎밥과 포트럭 파티가 진행됐다.

포트럭 파티(Pot - luck Party)는 방문객이 한두가지 음식을 갖고 와서 다같이 모여 나눠 먹는 파티형

태로 느림과 나눔의 주제에도 잘 어울렸다는 평가다.

대나무 스피커 만들기 체험행사와 슬로공동체에서 만든 연잎가루, 연잎 차, 공예품들도 선보여 이날 순창을 찾은 도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공동체나 농장이 주관이 된 팜파티를 4회 더 운영해 지역농업인과 도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적성슬로공동체 최홍식 사무장은 "이번 팜파티는 순창의 섬진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태와 자연을 주제로 한 팜파티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순창에 와서 농촌의 공동체 문화와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추진

만12세 무료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고창군(군수 박우정) 보건소가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20일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의 지원대상은 만12세(2003.1.1.~2004.12.31. 출생) 여성청소년으로 대상자는 가까운 사업 참여 의료기관(고창병원, 강신병원, 강신병원(화과)의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 의료인의 '건강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두 가지 서비스를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300여명이 발병해 연간 90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질병부담이 높은 암이지만 예방접종

으로 발병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여성 암이기도 하다.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99%는 '고위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통해 고위험 HPV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으로 기간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던 접종비용(2회 접종 시 약30~36만원)에 대한 부담이 없어 향후 예방접종을 향상 및 자궁경부암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560-8758, 8757)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15건 안건처리

임실군의회(의장 문홍식)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16년도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임실군 노인 목록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공무원 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의건 1건, 2015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날 의결한 군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천 349억원으로 본예산대비 4.7% 증액됐다.

또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는 문홍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의장의 소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군민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순창군이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신청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국민주택으로 순창경전주공아파트와 풍산휴먼시아 아파트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전북도와 재원을 부담해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3세대에 호당 1,600만원 한도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무이자 지원기준을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6년)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12월 말까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650-1771)에 신청하면 된다.

서화중 군 농촌주거계장은 "이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말 기준 총 15세대 1억 9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연장대상자 8세대 중 5세대를 연장시켜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축산농장 안내판 설치 지원

3천만원 투입 20개소 완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 친화적이며 아름다운 정경 명품 축산농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작 각으로 설치된 축산농장 안내판을 규격화·통일화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축산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양적인 성장세만큼 질적 성장도 요구된다고 판단, 축산농장을 아름답고 친화적인 농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정실천의 일환으로 안내판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내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천만원을 투입, 20개소의 축산농장에 설치 완료했다.

참농가들의 호응도 매우 좋아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어 매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판을 지원받는 농가는 농장 진입로와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단 등 경관을 조성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정활동의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친화적이고 아름다운 명품 축산농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의식교육을 통해 농장주변의 환경정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에 걸맞은 농장환경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시설채소 가뭄·고온피해 대응 당부

하우스 온도 30℃ 이하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에서는 지속되는 가뭄과 이상고온에 의한 시설 채소 피해를 우려되어 고온관리 대응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시설내 고온 피해양상으로는 작물의 호흡량이 많아져서 광합성률이 낮아지게 되어 생육장애의 위험성이 있으며, 하우스 내부 온도가 40℃ 이상 올라가면 꽃이 수정되지 않고 떨어지며, 50℃정도가 되면 생장점이 말라죽게 된다.

또한 시설내 지온이 30℃ 이상 되면 뿌리털의 발생이 억제되고 뿌리의 호흡이 왕성해져서 동화산물의 소모가 많아지므로 작물비대를 저해하여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온현상이 지속될 경우 작물의 품질 저하, 기형발생 등 갑습결핍에 의한 피해도 발생된다.

고온에 의한 피해대응 관리요령으로 고온장해를 받지 않도록 환기를 잘하여 하우스 안의 온도가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강한 햇볕 차단을 위해 가급적 차광을 하지 말고 꼭 할 경우에는 차광 정도가 아주 낮은 차광망을 하우스 내부보다 외부에 씌우도록 한다.

특히, 물 부족과 차광정도가 심할수록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엽육조직의 발달이 불량하므로 충분한 물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온에 의한 농작업시 농약살포 및 하우스 작업 등은 고온에 의한 재해(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침, 저녁 시원한 시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 동계-주월마을 귀농귀촌 우수마을 선정

셰어하우스 준공... 젊은 귀농인 유치 등 인정

순창군 동계면 주월마을이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한 귀농귀촌 우수마을심사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귀농귀촌 우수마을은 전라북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지난 한해동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의 성공적 모델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치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 위해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평가단이 구성돼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더했다. 시상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전라북도 귀농 박람회 개최식에서 진행될 계획이며 주월마을은 표창장과 시상금을 받게 된다.

순창군 주월마을은 지난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서 머물며 귀농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준공하고 특히 2030층 젊은 귀농인들

을 유치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젊은 귀농인 셰어하우스에 입주한 젊은 귀농인들은 귀농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물론 마을 봉사활동 및 주민 화합행사를 추진해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귀농인 셰어하우스는 폐농협창고를 개보수해 '귀농귀촌인과 더불어 사는 집'으로 지난 12월 완공해 현재 2030 귀농인 3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

준공식 때는 마을주민들이 참여해 음식을 준비해 마을 잔치를 추진해 귀농인과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귀농인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 중인 휴 건축연구소 '살림' 회원들이 주월마을을 화관을 친환경 단열재를 활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만들고 빈집을 정비하는 등 활동을 진행해 귀농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함께사는 마을 만들기에 앞장선 것도 높게 평가됐다.

순창군은 이외에도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마을 조성 등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귀농귀촌 이호준 계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공동하우스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마을 조성을 위해 주월리 마을주변에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해 입주자 주도형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월마을은 54가구에 1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밤, 매실, 양잠, 호두 등 특화 작목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어 귀농인들이 농촌 현실을 배우기에 안성맞춤인 마을이다 주월리에 있는 공동하우스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휴건축연구소 살림에 전화 010-4006-5628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군민대화합 한마당서 대상

고창군 고수면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던 '풍천강어와 함께하는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중 '군민대화합 한마당'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관광객과 군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주민참여 행사로 마련된 '군민 대화합 한마당'에서 고수면의 '북분자 트윌트'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선운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지난 17일 진행된 행사는 박우정 군수, 이상호 군의장 유성업 국회의원, 이호근·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관광객,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14개 읍면에서 각자 준비한 노래와 댄스로 열린 경

쟁을 벌였다.

이날 고수면은 설운도의 '사랑의 트윌트'에 맞춰 옛날 교복을 입고 나와 노래와 춤을 선보였으며 참가자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 대상을 수상했다.

안승현 고수면장은 "축제를 위해 2주가량 주민과 함께 저녁이면 함께 모여 연습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바쁜 영농철에도 축제를 더욱 빛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화합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고수면 외에 최우수상은 대신면, 우수상 부안면, 인기상은 공음면이 수상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문화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문' 사업 중 하나로 4월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남원시에가람길창작공간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의 수강생들은 악단창설, 문화사업 계획 등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현재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체계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전문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강생이 직접 사업 기획서를 써보고 평가하여 일반인에게 생소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문화관련 사업에 필요한 실무를 지도하고 있다.

남원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근위원은 "이번 교육으로 남원의 문화기획자들이 늘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문화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